

# 자활 익기

vol. 23  
2018

스페셜  
2018년 제4회 자활복지 국제심포지엄

우리가 현장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지역자활센터

꿈이 자라는 일터  
자활기업 반희담

각인각색  
전남광역자활센터  
<우수자활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첫눈이 내렸습니다.  
밭에 나갔습니다.  
눈 사이로 누워있는 고춧대에 늦둥이로 낳은  
고추하나  
채 영글지 못한  
흰둥이를 끌어안고  
참아 추을까봐  
구름사이  
햇빛을 쬐고 있습니다.

<첫 눈> - 이동원(필명 고향샘물)

## 스페셜

### 2018년 제4회 자활복지 국제심포지엄

- 03 라운드테이블 I -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지원 확대 방안
- 09 라운드테이블 II - 저소득층 근로미약자를 위한 새로운 자활모듈에 대한 검토

## 자활현장

- 15 우리가 현장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지역자활센터
- 18 꿈이 자라는 일터 자활기업 반희담 임명자 대표
- 20 이 사람(1) (사)지역사회적경제허브센터 박명배 대표
- 24 이 사람(2) (주)코리아센터 정상목 실장, 이광우 대리
- 28 각인각색 전남광역자활센터 <우수자활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 32 자활프리즘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 자활충전소

- 34 문화산책 음식으로 영화를 읽는다

## 생기발랄

- 36 자활툰 + 자활 에세이 EITC(근로장려세제)
- 38 Now & News 중앙자활센터 소식
- 40 독자 참여코너 가로세로 낱말퀴즈

<자활읽기>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자활읽기>는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www.cssf.or.kr) 소통마당 홍보자료실에서  
e-book(전자책)과 PDF파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ISSN 2288-0445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자활읽기> 통권 제23호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처 (재)중앙자활센터 02-3415-6900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3, 삼창빌딩 5층 www.cssf.or.kr

디자인·인쇄·제작 좋은PR소야 070-4616-4040~3 이미지 Getty Images Bank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의 자료는 중앙자활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하며,  
외부 필자의 글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페셜

| 정리·사진 김보현(중앙자활센터)

2018 International Symposium on Self-sufficiency... 18. 11. 22(목) 10:00 ~ 17:00...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그랜드홀(B1)



## 2018년 제4회 자활복지 국제심포지엄



중앙자활센터는 국내 탈빈곤 자활사업의 비전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격년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중앙자활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행동의 변화를 동반하는 탈빈곤 자활사업 기획'이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22일에 개최되었다.

세부 프로그램은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지원 확대 방안과 저소득층 근로미약자를 위한 새로운 자활모델에 대한 검토 등 두 가지 라운드 테이블로 구성되었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가는 자활근로사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현장과의 신뢰와 공감에 기반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현장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보았다.

### 라운드테이블 I -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지원 확대 방안

#### 01/ 미국 버팔로 뉴욕주립대학교의 남윤주 교수 - 4차혁명(AI) 시대 청년층을 위한 재무관리 역량과 자산형성정책 및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많은 일들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다수 대체되었다. 대체된 일자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의 경우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이후 여러 가지 스펙 쌓기로 인한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원활한 독립된 삶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졌다. 특히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그 역할을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금융 자산은 장기적인 자기 계발을 위한 투자와 창업과 같은 도전이 가능토록 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상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은 중요하다. 자산형성사업은 구조적으로 자산형성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참여자 스스로가 재무관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기존과 같이 인센티브가 있으면 저축을 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한 정책보다는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책을 최대한 단순화하며 참여자가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않아도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동계좌개설이나 자동이체 등의 디폴트 또는 옵트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황이 비슷한 참여자들이 만나 서로를 북돋아줄 수 있는 자조모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단순히 금융부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자산형성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청년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와 비교하여 청년 수당이나 청년희망기움통장 등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본다. 다만, 정책과 프로그램 설계 시 생애주기 상 청년의 위치와 가치관 등 대상자에 대한 분석, 그리고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매월 소득에 따라 약정 저축액 변동을 인정해주는 등의 유연함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세울 때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직접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윤주 뉴욕주립 버팔로대 교수

**01** 현재 한국의 복지정책에서 청년을 바라볼 때 고용의 대상에서 복지의 대상으로 이전 중이지만, 실제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부재하거나 단발성 프로그램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초하에서 교수님이 보시는 한국의 청년을 위한 복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한국에서 청년이 현 정부의 화두이고 청년수급자들이 늘어나는 등 최근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등의 아동복지정책이나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노인정책은 대중적이지만 청년을 대표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이는 복지국가의 목표가 사회적 약자, 특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고 그런 면에서 최근까지 청년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대학등록금이나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등 초기 투자비용이 늘어났으며 이것이 가족의 책임영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부모가 투자하는 정도에 따라 청년들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년층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그들도 사회적 투자자

필요한 연령층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년들에 대

한 지원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2** 전체적으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가 중시되고 있지만, 특히 장기적인 조사 등을 통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성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과성과 평가에 대한 방식이나, 또는 대안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 어떤 정책이든 평가의 기본은 그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은퇴자산형성지원사업의 목표는 노후를 대비해 저축을 많이 하고 자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명확합니다. 정확한 목표를 알면 장기적인 목표에 맞는 단기적인 평가측도(outcome measures)를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저축이 목표라면 초기저축액, 저축패턴 등, 대학교육이 목표라면 성적이나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 등입니다. 시간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또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이득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한국에서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본인이 적금해야 하는 금액이 없이 근로만 하고 있다면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통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장 프로그램은 방향성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성을 수립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을 장려하고 통장을 만들어 투자방법이나 운영방식에 대해 배우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자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고 교육이나 전세자금, 결혼자금 등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인지 우선사항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자기기여가 없다는 점에서 투자보다는 지원의 개념으로 보여지고, 그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만 미래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가 도태된다면 향후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지지 않을까요? 지금의 청년층들이 아동바등 살지 않아도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는 여유와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4** 현재 한국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즉 통장가입 유지율은 매년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통장가입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정책을 세울 때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직접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참여자들이라도 구성 및 목표들이 다양하고 실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조사도 필요합니다. 실제 참여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라고 볼 때, 그들은 하루하루 생계유지를 위해 바쁘기 때문에 본인은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한데 적립알림을 받는다면 스트레스 요인이

추가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대상층을 잘 파악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에 연구를 통하여 대상층에 맞는 프로그램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략하고 핵심적인 정보만을 소개하는 심플한 모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5** 학교에서 주관하는 Social impact of AI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한 진행 상황을 말씀해주시 수 있나요?

••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족이나 부모들의 배경이나 투자가 필요 없어지는 직업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생각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기술을 어떻게 자산형성과 결합할 수 있겠는가와 같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저소득층들이 쉽게 가계부를 쓸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한다든지, 소량의 금액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 레시피를 소개하고, 남은 돈으로 저축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등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산형성관리 부분에서 기본적인 것은 AI를 활용하는 것이 감성노동자 고용보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객상담은 AI를 통해서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전시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교환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교의 야마모토 코헤이 교수 -  
일본 복지제도에서 청년 지원의 위상과 지역 청년 실천 철학·과제

일본에서 청년은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청년에 대한 정책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나 '복지에서 고용복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왔다. 다양한 조사에서 보여주듯이 청년층의 빈곤이 가족경제 불균형으로 인한 청년층 자립의 불리함에서 기인하며 다수의 청년이 빈곤과 저소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아동기에서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된 복지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침투와 시장원리주의 정책으로 인해 빈부 격차가 심화된 일본은 2003년부터 '청년 자립 도전 플랜'을 실행하고, 'JOB 카페'와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개설하여 고용의 관점을 통해 청년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은 취업자 성과 중심으로 예산이 책정되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소개소의 성격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비정규직 청년들이 대거 해고되어 많은 청년들이 생활보호 신청과 범죄에

노출되면서 자발적 니트나 은둔형 외톨이가 생겨나고,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확대되었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 역시도 질환이 아니라 하나의 상황으로 간주되면서 복지 대상으로 포함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 정책은 포용과 배제의 관점에서, 실천으로는 발달 장애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년 지원 정책은 가정·주거, 일·소득, 동료·친구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아동기에 대한 환경정비와 사회 안전망 유무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일자리 중심 정책보다는 사회적 포용의 증진(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모든 청년의 사회 진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중에는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기 힘든 사람도 있으므로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참고로 현재 일본에서 대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무기노사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무기노사토는 하트풀 하우스(학교밖 청년 지원)를 시작으로 정신장애 시설에서 은둔형 외톨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무기노사토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주는 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입각하여 '하지메 카페'를 열고 인근 주민과 협동해 은둔형 외톨이가 지역 자치에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 N T E R V I E W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청년들이 지원의 대상, 객체가 아닌  
사회의 주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Kohei YAMAMOTO  
리츠메이칸대 교수



01 청년을 지원하는 경로에서 행정조직, 수  
행 조직 등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적절하  
다고 보시지요?

■ 일단 청년이란 어른이 되어가는 이행기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30대까지가 청년이라는 법제상의 정의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 기간을 길게 잡아, 40대 중반까지 청년기를 연장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문제는 부모의 학대나 친구들의 괴롭힘, 발달장애 및 히키코모리(은둔형외톨이) 문제 등 그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취업을 통한 사회적 자립만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청년문제해결은 친밀권역인 '가족·주거', 노동권역인 '일자리·수입', 공공권역인 '동료·친구'의 분야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지가 적절히 보장되는 가운데 청년들이 사회에 합류하기 위해선 복지와 연동하는 주거정책, 일자리정책, 지역생활정책, 그리고 청년교육(사회교육)이 필요합니다. 단,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일을 추진하다 보면 종합적으로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02 한국에서도 장기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지  
만, 청년보다는 중장년층의 문제가 강조되  
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의 일  
본의 시행착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어떤 점을 중  
요하게 봐야하는 지에 대하여 여쭙보고 싶습니다.

■ 일본과 서구를 중심으로 선진각국의 실업률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고용상황은 세계금융

위기수준까지 나빠져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직하지 못한 장기실업자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청년의 경우 노동자로 자립하는 시기에 '구직 → 취업실패 → 장기실업 → 구직단념'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놓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취업의지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청년비정규직이나 취업실패는 청년의 의지부족 문제가 아닌 명백히 구조적인 과제입니다. 취업활동과 거리가 먼 청년들은 다양한 구직 저해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심각성에 따라 구직에 대해 느끼는 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주거부터 지원되어야 할 대상, 일자리가 먼저 제공되어야 할 대상 등 정책의 대상자를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상담영역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일본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청년영역 전반에 걸쳐 충실히 정비가 잘 되어있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에대한 문제를 봤을 때 초기상담체제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의 문제는 다양하기에, 한국의 경우도 초기상담을 하기 위한 창구체제를 확대·정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03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헬로워크와의 차이점  
등은 무엇인가요?

■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은 후생노동성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취업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직업적 자립을 목표로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지원실적과 노하우를 가진 지역 NPO법인 등이 지역청년 서포트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커리어컨설턴트와 같은 전문적인 상담과 협력기업에서의 취업체험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로워크는 직업알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취업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15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커뮤니케이션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텝업' 및 협력기업과의 취업체험과 같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청년 서포트스테이션을 통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선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지원을 하는 후생노동성의 입장에서선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원층들의 취업률을 높여야한다는 조건 때문에 취업을 엄두도 못하는 청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역청년 서포트스테이션은 점점 취직만을 목표로 삼고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 헬로워크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04** 현재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이 기존의 '헬로워크'화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또는 헬로워크와 서로 보완하는 기능을 하려면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요?

•• 지금 취업률이라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게 현실인 상황에서, 다음 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서포트스테이션이 필사적으로 취직을 알선하고 취직과 진학 등을 결정한 사람들을 늘리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서포트스테이션이 헬로워크와 서로 보완하는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청년들 즉, 다양한 장애요인을 가진 청년에 대해 지원한 것을 평가받고 참여자의 특성에 맞도록 설계한 뒤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05** 교수님께서 현재 일본의 청년지원복지제도와 사업 성과를 되돌아 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를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담당자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 우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청년들이 지원의 대상, 객체가 아닌 사회의 주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과 그 실천에 있어 취업활동을 중심으로 한 청년대책을 벗어나 청년복지정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의 청년대책은 말하자면 사회정책의 한 부분으로 '포섭과 배제'라는 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복지정책이라는 입지를 다지기 위해선 오늘날 사회로의 포섭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발달을 보장하는 실천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봐야 합니다. 정책담당자는 사회에서 써먹기 좋은 청년을 키우는 사업을 정책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과제를 파악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다면 청년에 대한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운드테이블 II - **저소득층 근로미약자를 위한 새로운 자활모듈에 대한 검토**

01/ 미국 시카고 로올라대학교의 필립 홍 교수 - **상향식 사회정책 혁신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TIP)**

TIP(Transforming Impossible into Possible)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 참여자 중심의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다. TIP는 이론적으로 정서적 자활이라고 하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핵심원리이자 평가 도구이다.

TIP에서는 자아 정체성 형성과 목표에 대한 열정이라는 두 가지 발달 과제를 지원하며, 15번의 세션 진행 중에 인지적 과정 및 비인지적 과정이 모두 포함되고 성찰과 행동이 통합된다. 성찰이라는 과정은 삶에 있어서 방해물이 무엇인가, 목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행동을 계획하는 것이다.

TIP은 단순한 자아실현의 과정이 아니라 내가 개발하고 발전한 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와 통합되어 있으며, 방해물과 희망이라는 요소가 공존하며 이것이 극복하고자 하는 힘의 근원이 된다.

TIP은 아래로부터, 풀뿌리로부터, 그리고 참여자들로부터 시작하는 접근법이며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는 방법이

기도 하다. 정서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구조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개인차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더 큰 영역 집단, 즉 고용하게 될 조직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IP은 이러한 영역의 확장을 위해 기업 및 기관들과 파트너로서 협업하고 있다.

TIP에서 기존의 경제적 자활과 정서적 자활과 달리 새롭게 제시되는 개념은 휴먼십(Humanship)과 변형(Transformation)이다. 휴먼십이란 자신의 발달과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변형은 개인의 내적인 힘을 가지고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형된 후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TIP이 혁신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사람 중심'으로 진행되며, 사업의 실행과정을 보면 계획을 세우고 가르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평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질문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하기 때문이다. TIP 기본 중심은 참여자 중심이며, 모든 과정은 참여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자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정신과 휴먼십의 개념을 가지고 아래로부터 참여자들과 함께 사업을 계획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혁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공감이가 이루어져야 하고  
혁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참여자들



홍영표  
시카고 로올라대 교수

**01** 이번 심포지엄 주제인 행동의 변화를 동  
반하는 탈빈곤 자활사업 기획과도 많이  
연결되는 PSS(심리적자활)에서 의미하는 “변형  
(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변형은 혁신(innovation)의 의미와도 비슷하  
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새  
로운 형태가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것들  
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혁신으로 보는지 그 의미  
가 광범위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알콜중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  
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알콜중독이 해결되고 더불  
어 거기에서 또 다른 목표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  
출했을 때 과거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한 발짝 앞으  
로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변형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전의 의미로도 보여지며,  
한 개인의 정서적인 동기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의미, 자활에 대한 의지가 변형을 이루기도 하는 것  
이죠.

**02** 사업종료 후에는 연락하기 어려운 대상자  
가 많아서 PSS 조사처럼 지속적인 조사  
가 어려울 때가 많은 데 PSS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이  
러한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정서적 자활의 의미로 봤을 때 한국에서는 상담  
과 교육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회과학적 리

서치로도 한계가 있고, 흐름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TIP을 코칭모델로 사용하면  
서 탈수급을 위한 임파워먼트(구성원과 조직의 의  
욕과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권한부여, 권한이양  
의 의미) 프로그램으로 사용해보자는 것이 1단계였  
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성공률, 취업유지율, 또 그  
를 통한 임금인상의 결과물이 도출되고, 이를 바탕  
으로 2단계에서 미국의 정부 및 재단과 기업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결과물의 어떤 포인트  
가 상승한 것이 중요한지, 어떤 요소들이 시너지 효  
과를 이루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사후조사와 outcome을 연계시켜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많은 사람  
들이 고용되지만 그 중 평균 50%가 퇴사하고 있습  
니다. TIP적인 요소를 반영했을 때 퇴사율과 그에  
수반하는 비용을 10%정도 절감한다고 보여지면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채용을  
하기 전에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채용과  
정 중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지만 기업에서도 관심있게  
보는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03** 한국에서는 심리적(정서적) 자활과 경제  
적 자활 모두 기존에도 지원하는 프로세  
스는 있지만, 성과 평가 시에는 경제적 자활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PSS에 대한 성과 평가는 어  
떻게 이루어질 수 있고, 향후 이 프로그램의 발전 모습  
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요?

자활사업에서 사업단이 매출을 발생하게 만들  
고, 참여자가 취·창업을 하는 등 집단적이고 경제  
적 성과를 많이 보지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는 건 어  
렵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기업 등에서는 그들이 존  
속하기 위해선 명확한 결과와 수치가 필요하기 때  
문에 심리적(정서적) 자활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  
한 하나의 수단으로 판단하지, 그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정서적) 자활의  
가장 전문가가 가장 빈곤하고 어렵게 생활을 유지  
하고 있는 사람들, 참여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  
다. 그들이 단순히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자활  
프로그램에 남다른 의지를 두고 프로그램에 임하는  
것은 변화와 결과치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생깁니  
다. 개인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목표가 창  
출되고 궁극적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모든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나아가고 기능습득력이 향상되고 유지  
율도 높아지는 등 성과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따라서 향후 TIP이나 PSS의 모습은 참여자가  
만들어내는 목표와 이를 통해 이루어나가는 결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04** 한국에서는 휴먼서비스와 경제적자활(시  
장형 자활근로사업단)을 묶다보니, 인간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  
니다. 교수님께서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  
는지, 아니면 한국의 자활프로그램의 구조가 지속가능  
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  
신다면 어떤 부문을 강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의 자활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업을 인큐베  
이팅 하는 것과 휴먼서비스 차원에서의 고도화 2가  
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래도 종사  
자들은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휴  
먼서비스 고도화를 중점에 두길 원하지만 사회적  
기업을 인큐베이팅 함으로써 매출액과 수익, 기업  
의 개수나 고용인력 등의 확실한 구조로 성과도 보  
여지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가  
장 힘든 시기와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휴  
먼서비스에 대해서 그들과 손을 잡고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여자들에 대한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  
기 때문에 혁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진  
정한 공감이가 이루어져야 하고 혁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참여자들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  
다. 현재는 TIP(정신적, 심리적 자활)이 하나의 수  
단으로 제시된다 하더라도 원래의 취지를 현장에서  
찾아 활용한다면 경제적 자활뿐만 아니라 휴먼서비  
스도 자연스럽게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02/ 스웨덴 삼할의 모니카 링게르트 대표 -  
상향식 사회정책 혁신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TIP)

삼할은 스웨덴에서 노동시장 정책을 스웨덴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체이면서 지난 30년 동안 3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외계층에서 벗어나 노동인으로 포함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삼할의 사명은 의미 있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삼할은 국영기업으로 25,500명의 직원 중 24,000명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웨덴 전역에 걸쳐 600개의 도시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매출액은 8억 유로이며, 한화로는 약 1조원 이상이다. 삼할은 1980년 스웨덴 수출산업의 하청업체로서 제조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용역업체로 변화하여 성장하였다. 현재는 청소, 인력 파견, 시설관리, 물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인력 파견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삼할사업의 핵심은 매칭이다.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능력을 고객의 요구와 맞춰주는 것이 매칭의 핵심이다. 직원들이 어떠한 장애나 진단을 가지고 있는 가보다는 16가지 능력에 초점을 맞춰 지적 및 신체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24가지 직업역할을 만들고 이 역할에 파견한 직원들이 적합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체크한다.

삼할의 성공요인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다른 기업과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둘째,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셋째, 의무와 권리가 공존하는 진정한 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삼할이 성공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변화에  
적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Monica Lingegard  
삼할 대표



01 삼할의 목표와 스웨덴 정부의 목표가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와 정부가 부여하는 목표에서 오는 불일치나 갈등은 없습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삼할의 우선순위는 정부가 맡긴 장애인들의 발달과 그들의 취업을 달성시키는 것, 다른 한편으로 시장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하며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2 앞의 질문과 연계하여,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나 혹은 초과 달성을 했을 때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존재하나요?

현재 2만5천명이 고용인원이라면 3,500명은 임시직입니다. 12개월 동안 그들은 일과 직업훈련을 병행한 뒤 외부로 취업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삼할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처럼 총 인원수에 대한 목표치가 있습니다. 삼할은 사업이 확장된 다음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먼저 삼할로 찾아오면 일자리를 매칭시키는 거꾸로 된 사

업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축소되었다고 해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또 시별로 몇 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할당량을 부여합니다. 또한 매년 일정부분의 소득을 내서 재무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직원들 중 60%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가진 직원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삼할은 이런 목표치들을 항상 달성해왔지만 아마 달성하지 못한다면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반납해야 될 것입니다.

03 삼할에서 교육과 훈련, 코칭을 받는 기간 및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교육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삼할스쿨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인데 그 규모가 연간 3만명, 24개의 직군으로 나뉘며 각 직군별로 훈련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3일 정도 교육하고 몇 달간 일하고 다시 3일 정도 교육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실제 며칠 간 이뤄지는 삼할스쿨 교육보다 몇 달간 직접 일하며 받는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팀별 교육으로 이뤄지며 10명 중 3명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직원들이 새롭게 취업한 기업의 관리자들에게 직원들의 다양성에 대한 교육, 이를테면 정신질환을 가진 직원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들과 일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04 삼할의 사업 성과는 어떻게 측정하고 있으신가요? 또한, 참여자 만족도 등 참여자 중심의 삼할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삼할은 장애인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들은 실제로 시설관리, 인력제공, 제조업, 세탁, 물류창고, 노인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장기적으로 고용한다는 점과 원한다면 그들이 삼할에 평생 고용되어 있어도 상관없다는 점에서 그들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과거에 일해 본 경험이 전무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된 경험이 많거나,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현저히 낮거나 교육수준이 낮거나 등의 복잡한 개인적인 상황들이 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일자리가 가지는 의미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팀의 일원이 되어 일하는 경험을 쌓고 거기에서 주는 소속감이 어떤 것인지와 더불어, 그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며, 이런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와 학습이 나타납니다.

### 05 삼할같은 모델이 없는 한국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복지기관에 부여하고, 참여자들이 복지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아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케이스다 보니 삼할모델이 예산적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하는데, 예산상의 효과나 이점이 있나요?

삼할의 비용효과성이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정부지원이 지금의 3배가량 높았으나 지금은 수익성이 더 높아지고 정부 지원은 1/3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생산단가가 중요했던 제조업 중심에서 비용효과성이 높은 인력파견과 같은 서비스업으로 사업의 변화가 있었고, 그와 더불어 직원들의 시간당 수익창출이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또한 삼할은 참여자들이 가진 장애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더 집중했습니다. 90년대에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로 제조업 노동력시장이 이동했을 때 그 변화를 따라가지 않았던 삼할과 비슷했던 영국의 한 기관은 5년 전 폐업했습니다. 삼할이 성공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변화에 적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즐거은 변화,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지역자활센터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는 2000년 8월 설립되어 지난 2016년 8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 '즐거은 변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안산지역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지역자활센터의 사업내용과 현황을 소개하고 이수남 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안산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핵심사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한 복지적 차원의 관리 및 주택관리, 청소 등의 주거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가능하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분들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시키고, 자연스럽게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유입하는 형태로 공익형 청소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핫팩, 아이스젤팩 등의 제조사업, 커피큐브 점토공장을 운영하는 등의 자원재생사업, 양곡배송 등의 택배물류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민 분들의 역량으로 가능하고 의미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산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서 변화가 생긴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직 사업내용이나 조직구조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했던 것들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라는 타이틀만으로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주거, 복지, 고용, 나아가 자산형성까지 지역자활센터 자체가 복지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직접적인 서비스가 주민 분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성취감이 실무자들의 근속년수를 높게 만들어 나름의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사업 운영방침 등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게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는 전국적으로 총 9개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표준화 모델을 만들거나 제도를 정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까지는 어려움보다 이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수원의 사회적임대주택 국토부 첫 시범사업도 안산지역자활센터가 법인으로 갖춰졌기 때문에 입찰을 받아 주관사가 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욕심을 내기 보다는 참여자들의 근로능력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분야의 업무를 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점입니다.

**타 지역자활센터 중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된 기관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자활센터로서 자활사업의 수익이나 매출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는 주민 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주거와 관련된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아가 10년 전부터 자산관리공사와 협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자체 내에서 파산서류 작성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과 단순히 연계만 한 것과 안산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관리가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주민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다 보니 실무자들이 주말마다 파산학교를 다니며 배우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서비스가 주민 분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성취감이 실무자들의 근속년수를 높게 만들어 나름의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자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대표사업인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의미있는 사례들이 있다고 알고있는 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주거복지 사업을 해온지 12년째입니다. 처음에 모두가 수익성이 좋은지에 대해서 궁금해 했지만 저희는 타 지역 유관단체들과 서비스가 중복되는 부분에서 지역자활센터로서 우리만이 가지는 강점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참여 주민 분들이 빛이 있다면 거기에서 가지는 큰 부담을 줄여주고, 가치분소득을 높여주어 궁극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독립시켜줄 수 있는냐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를 연결시켜주고 빛을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입주청소를 포함한 주거복지, 매입임대주택관리 사업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여주민 65명 중에 35명은 저희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지자체에서 입주가 필요한 분들 명단을 저희에게 넘겨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입주하시다 보니, 만족도도 높아지고 더불어 청소나 수리 등 일을 하시는 주민 분들의 보람도 높아져 본인들의 성장을 스스로 몸소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활'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자활은 희망이다' 같은 말도 생각하긴 했었지만 그런 짧은 말보다 자활을 처음 접하게 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주민센터 등에서 권유나 상담들을 통해서 스스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부득이하게 노출된 상태에서 또 다시 자활센터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활센터도 참여자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과거에 일자리 경험이 있으시지만 사업 실패나 개인적인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언제나 누구든지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절대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워 마시고 저희 안산지역자활센터는 물론 지역 자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내게 자활은 희망을 열어준 통로

## 자활기업 반희담 대표 임명자

반희담은 올해 1월 자활기업 설립에 이어 3월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자활생산물 중 유일하게 카카오 메이커스에 입점하여 4차례 매진 및 6차례 앵클 기록으로 활약하며 계속 성장 중인 자활기업 반희담의 임명자 대표를 만나보았다.



Q 반희담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희담은 '반진고리에 희망을 담다'의 앞 글자를 따왔어요. 로고는 실 뭉치를 형상화했는데 느리더라도 좋은 품질, 좋은 공정으로 정직하게 나아가자는 의미입니다.

Q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 사업단으로 시작하여 2018년 1월 자활기업과 함께 3월에 협동조합을 설립하셨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A 처음엔 당연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활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된다고 해서 충분한 상품가치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있었어요. 또 매장에서 판매를 한다고 해도 매일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닐 테고 외부행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참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판로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Q 전국 251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하는 자활상품 중 어떻게 카카오 메이커스에 입점하게 되셨는지요?

A 처음에는 카카오 메이커스가 어떤 것인지도 몰랐는데,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말 그대로 저희 생산품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 힘써주신 덕분에 자활상품 중 처음으로 입점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Q 입점 후 매진과 더불어 여러차례 앙코르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매출 성장률 등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A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편백나무 큐브가 들어있는 베개가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매장에서 판매가 되긴 어려운 품목일 수 있었는데, 6번 정도 앙코르판매가 되었고 매출신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를

계기로 단체에서 앞치마 대량생산이나 홍보 기념물품으로 파우치도 몇 백 개씩 주문의뢰가 들어오곤 합니다.

Q 지금의 반희담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A 자활기업으로 나오기까지 나름 열심히 컨설팅을 받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자활생산물이라고 하면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인지도도 낮고 무조건 싸야 된다는 인식이 많은 편이라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도 하고, 젊은 층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요소에서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또 카카오 메이커스에 자활생산물 첫 입점이라 심적 부담이 컸습니다. 예를 들면 홈쇼핑 같은 경우도 반품, 환불수량이 엄청 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도 걱정과 우려가 많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웃음)

Q 대표님께서 '자활'을 어떻게 접하시게 되셨나요?

A 개인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곳저곳 찾아보다가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지자체를 통해 자활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자활센터를 소개받았을 땐 단순히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곳이라고만 알았는데, 자격증 취득에 대한 조언을 받고 공부하고 교육을 받는데 월급까지 주니까 신기하고, 뭐 이렇게 좋은 곳이 다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다녔어요.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점,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점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했어요.

Q 제일 좋았던 교육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A 모든 교육이 도움이 됐었지만, 예전에 광역자활센터에서 리더십 교육을 받았을 때 다른 지역 분들을 만나서 같이 교육을 받고 워크숍을 가는 등의 교류를 나눴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자활기업을 준비하던 중에는 그동안의 주먹구구 방식이 아닌 매출과 수익 등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을 받았을 때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Q 임명자 대표님께 자활사업은 어떤 존재, 의미인지요?

A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맙고 감사한 건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제게 소속감이란 걸 처음 느끼게 해준 것이 너무 좋았어요. 어딜 가나 본인하기 나름이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자활이야말로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해요.

Q '자활'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과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A 반희담이 자활기업이라서가 아니라 기술이나 품질을 보고 그만큼 값어치가 충분하다는 인식을 가질 때까지 노력하고 싶어요. 본인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하다보면 힘이 됩니다. 저희를 보면서 자활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작은 희망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자활사업단을 시작할 때 쪽가위와 바늘을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시절을 거쳐 지금의 반희담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준 '자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임명자 대표의 얼굴은 인터뷰 내내 밝은 표정이었다. 본인이 자활사업으로 역량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 나눔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하지만 한편으론 원대한 꿈이 머지않아 이루어지길 희망해본다.



#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사회적경제 전도사'

**(사)지역사회적경제허브센터 박명배 대표**

사전 준비 과정에서 박명배 대표와의 인터뷰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다. 실제로 만나 그의 하는 일을 들어보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깊은 해안과 식견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당초 30분 정도 예상했던 인터뷰는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되었고, 그 중 일부를 요약하여 정리하여 본다.



## 01

**안동지역자활센터 실장을 거쳐, 사회적기업인 돌봄서비스센터 및 지역사회경제허브센터 대표를 맡게 된 과정 소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만들질 당시 안동지역자활센터에는 32명의 요양보호사가 계셨습니다. 돌봄서비스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당시 안동지역자활센터장이셨던 수녀님의 도움으로 돌봄서비스센터를 설립하였고, 2년간 지역자활센터의 부설 센터로 있다가 2010년에 독립하여 현재 80여 분의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요양사 중 80% 정도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입니다.

저희 돌봄센터는 요양보호사를 선발할 때 1순위로 자활참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서 65세 정년을 폐지하여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희 돌봄 센터 이직률은 10% 미만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감정노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행복해야 서비스를 받는 고객도 만족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행복을 1순위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무시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경우 저희가 앞장 서 서비스 대상자와 계약을 해지합니다.

지역사회경제허브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안동은 도농복합지역이고 서울과 달리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보니

마을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의를 안동시청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통과되기 3년 전인 2004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자활기업들이 향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가겠구나 하는 전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안동시에서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전문가로 저를 추천하면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이런 문의가 점점 많아지자 안동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지역사회경제허브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동을 비롯한 경북 일대 사회적경제조직, 자활기업, 마을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 02

**(사)지역사회경제허브센터의 사업 분야의 특징과 가치**

안동은 지역적으로 대구에 상수원을 제공하는 곳이라 대규모 공장과 같은 제조시설이 입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조 산업 기반이 아닌 가치 중심의 경제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서로 연합하여 뭔가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것이 호응을 얻게 되어 주민 교육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교육을 받은 주민들을 주축으로 마을 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예로 2017년 안동시가 임동이라는 지역에 오토캠핑장을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회적경제 교육을 받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해 약 3개월간 운영 계획서를 만들어 안동시에 해당 오토캠핑장을 마을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위탁받아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이 운영,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운영하게 되면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안동에 있는 중앙신시장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지역자활센터 참여 주민들로 주차 관리요원들을 배치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이들의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에서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 공동체가 잘 형성이 되면 지역자활사업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을 없애기 위한 완전한 정책이 있다면 단연코 ‘자활’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03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예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동의 임동 대곡 격오지에 독거노인들이 계시는데 대중교통이 원활하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걸려 요양보호사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1,2,3급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데 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비용으로는 도저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곳이었지요. 그래서 임동 대곡 출신 기업가에게 이런 고향의 상황을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 곳 출신 중 교촌치킨 대표가 계신 것을 알고 임동 대곡 어르신들의 열악한 상황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을 자세히 적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요양서비스 추가 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 교촌치킨 CEO가 매년 2,000만원씩 7년 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안동 지역의 열악한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 주민들과 찾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좌관 중 한 명을 사회적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을 전담하도록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 04

**현재 대표님께서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 돌봄서비스는 도우미들이 더 많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회적경제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식당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식당은 밥을 나누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금요일까지는 밥을 팔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판매 수량의 절반을 무료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다른 복지 기관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주말은 하지않기 때문에 그 빈틈을 메우고 있습니다. 지금 주중에 약 800여 그릇 식사를 판매하여 주말에 약 400여 그릇의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6명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먹고, 입고, 자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나서서 활동하면 사회적경제 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분야는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발히 유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판로를 개척하여 크기를 넓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더 나눔’이라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경북 지역 사회적기업에서 제조,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장님께서 약 50억 원 정도의 물품을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구입해



주신 것도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05

**자활이 대표님께 갖는 의미?**

•• 저는 2008년까지 만 10년 넘게 지역자활센터에 몸담았었는데, 지금도 생각하기에 가난을 없애기 위한 완전한 정책이 있다면 단연코 ‘자활’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를 교육시키고 사업에 참여시키고, 사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자활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봄사회서비스센터 요양보호사



사회적경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지역자활센터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는 모르겠지만,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시절은 자활의 기초를 세우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자활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자활 영역으로 다시 되돌아갈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자활 외 영역에서 배운 다양한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당연히 자활에서 배운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사랑하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박명배 대표의 모습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앞으로 행보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



# 자활사업의 든든한 파트너

## (주)코리아센터 정상목 실장, 이광우 대리를 만나다

지난 2017년 12월 28일, 코리아센터와 대전광역자활센터가 전자상거래 교육지원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자활기업, 예비창업자, 자활기업 가족들의 교육 및 창업지원 등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된 이번 협약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코리아센터 정상목 실장과 이광우 대리를 만나 들어보았다.



### 01

**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크샵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쯤 들어본 이름 일텐데, 이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주)코리아센터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코리아센터는 200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메이크샵은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기반 임대형 솔루션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현재 2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쉽게 말씀드리면 규격화된 템플릿을 제공하고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고객관리, 상품관리, 배송, 마케팅 등 여러 기능을 활용하여 1인 사업주들이 쉽게 온라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임대형 쇼핑몰들이 메이크샵 솔루션을 거쳐갔다고 보실 수 있는 만큼 이커머스(e-commerce) 붐을 현재도 만들어가고 있고, IT뿐만 아니라 몰테일, 해외직배송, 판매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지원사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 02

**지난해 12월 말, 대전광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우연히 배재대학교 교수님을 통해 대전광역자활센터에서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코리아센터가 지원해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검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들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메이크샵 솔루션과 부가서비스 그리고 교육지원까지 모두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메이크샵 임대료 및 적게는 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60만원까지의 관련 부가서비스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며, 원하시면 자활기업의 가족들까지 온라인 판로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 03

**업무협약을 맺으시고 약 10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특별히 말씀해주실만한 성과가 있으실까요?**

• 현재 대전지역 총 3군데(행복자전거, 단미공방, 착한누룽지) 판로를 구축하였으며, 이중 5월에 오픈한 착한누룽지 같은 경우 지금까지 매출액이 꾸준히 발생하며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수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오프라인 판로에만 치중 되어있었던 것을 온라인으로 까지 확장시켜 매출액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04

**자활기업들의 대부분은 자활상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있어 판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도 제작하거나 직접 다루는데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여기에서 코리아센터의 지원내용은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활사업에 관심을 가**

# KOREA CENTER

지시게 되었으며, 지원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시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 대표님께서 쇼핑몰을 직접 운영해보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메이크샵 솔루션을 만드셨습니다. 본인이 운영해보시면서 진입장벽이 높고,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번 대전광역자활센터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좋은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단단하게 지원 내용을 구축하여 올해 중앙자활센터와도 협약을 맺고 전국화 지원으로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5** 쇼핑몰 솔루션 지원 등을 포함해서 교육도 함께 지원해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 10명 중 8~9명은 실패한다는 말도 있듯이,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서울에 약 540여명의 직원들이 있으며 이 중 120명 정도는 직접 컨설팅 교육이 가능합니다. 판로를 구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매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케팅, 컨설팅,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06** 자활기업이나 자활을 통해 창업을 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교육은 무엇이며,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 보시나요?

■ 구축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저희가 해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향후 어떻게 운영해나가는지가 관건입니다. 온라인의 경우 구축에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리뉴얼이 필요하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한 트렌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CS

팀이 24시간 유지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며, 메이크샵 솔루션 이용자가 아닌 경쟁사들도 문의를 남기면 무료로 상담 및 답변이 가능한 커뮤니티도 운영 중입니다.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해왔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코리아센터가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움을 최대한 드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협력파트너로서의 육성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07** 중앙자활센터에 요청하시고 싶은 사항이나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 각 지역 자활기업 종사자분들과 담당자분들이 많이 바쁘시고, 또 피치 못한 사정들로 업무가 지연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자활센터에서 그분들의 동기부여를 고취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앙자활센터에서 광역자활센터로 또 다시 각 지역자활센터로의 업무 프로세스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조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니 저희를 장기적으로 미래의 파트너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끝맺으며 코리아센터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성공적인 안착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그 후에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선순환 구조를 희망한다고 했다. 빠른 성과를 보기 위해서 업무진행을 좀 더 가속화 시키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며, 함께하는 동업자로서 메이크샵, 나아가 코리아센터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코리아센터의 지원으로 자활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이 수월해지고 그를 발판으로 자활사업이 좀 더 활기를 띠길 기대해 본다. 🍀





# <우수자활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다각도로 조명하다

전남광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한 <우수자활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는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 참여기업과 참여자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이다. 참가한 네 주체의 목소리를 통해 본 프로젝트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프로젝트 기획자



인터뷰 1

프로젝트 기획자 \_ 전남광역자활센터 구문정 부장

### Q.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배경

전남광역자활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참여자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한다면 광역자활센터는 자활기업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야 하는데, 자활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바라고 있어 이를 충족시킬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현장에서는 기술교육,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교육을 받을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가질 수 없고, 사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참여자가 자활기업으로 발전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성공한 자활기업이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이를 다른 기업과 참여자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여 준비된 프로젝트이다.

### Q.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프로그램 기획자는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탁상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장의 요구와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과 참여자, 참여 대표자의 요구의 교집합을 찾아내고, 다양한 이견이 표출될 때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광역에서 현장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기획

### 동반성장 프로젝트란

전라남도의 재정적·지리적·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지역자활센터 전체 참여자 위주의 경영 직무교육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지역자활센터 현장 교육의 한계점을 넘어 자활기업이 존속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우수자활기업의 사회적 기여도와 멘토링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자활기업과 예비자활기업에 대해 기술이전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자활기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공동체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하는 것이다.

본 사업은 2017년 6월 ~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전라남도 내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종사자,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총 21명이 참여하였다.



하고, 전문가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재정적 한계점이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 Q. 동반성장 프로젝트가 담양지역자활센터 또는 전남광역자활센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올해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이 때문에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초 전남광역자활센터가 세운 3개년 계획 중에 첫 해의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자활기업을 유기적으로 묶었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싶다.

### Q.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하는 실무자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전남광역자활센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들이 이를 믿고 동참해 주셔서 시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해도 안 될 거야'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지역자활센터나 자활기업에서 새로운 시도를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가능했던 프로젝트였다. 실무자들은 무엇보다 현장의 협업,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자활센터  
프로젝트 실무자



인터뷰  
2

지역자활센터 프로젝트 실무자 \_ 담양지역자활센터 김계두 팀장

Q.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처음 제안 받았을 때의 소회

담양지역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인원이나 자활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일례로 기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처 대도시인 광주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왕복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고민을 전남 광역자활센터와 함께 공유하였고,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제안 받았을 때 약간의 반신반의한 생각도 있었지만, 멘토의 역할을 해주실 서수진 대표와 함께 한다가에 참여자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겠고, 자활기업 설립과 성장, 마케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Q.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담당 실무자가 바라는 바

실무자 입장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러려면 자활 상품의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멘토이신 서대표와 함께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판매 루트를 찾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본 프로젝트가 안착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중앙자활센터나 광역자활센터에게 바라는 점

아무래도 중앙이나 광역자활센터의 경우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처럼 현장 중심의 접근이 어려울 수가 있다. 이에 따른 물리적, 정서적 괴리감이 있다. 각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인터뷰  
3

참여자 \_ 김정로씨

Q. 동반성장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감

기존에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다. 지나친 성과주의와 경쟁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다. 새로운 일을 찾다가 담양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전문성도 부족, 사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멘토로서 서수진 대표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잘 적응해 가고 있다. 보람이라면 참여 전에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매사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람도 싫어졌는데,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자신을 반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참여자



인터뷰  
4

참여기업 멘토 \_ 담음도자기 서수진 대표

Q.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제안 받았을 때의 소회

처음에 자활센터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는 것이 놀라웠고 좋았다. 처음에는 자활 참여자와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지, 어떻게 교육을 실시할지, 사업적으로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Q. 주체 기관과 교육생과의 관계에서 멘토로서 가져야 할 마인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선생과 제자이지만, 수직적 관계로 운영하기는 원치 않았다. 다행히 참여자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인격적으로 잘 대하려고 노력을 했다.

Q.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과 개선점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가르치는 시간과 지급되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집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우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이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개선사항은 참여자들에게 좀 더 많은 교육 시간이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Q.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으신 성취감, 보람, 경제적 이익 등 긍정적인 측면

멘토의 역할로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단순히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마음가짐 더해져서 교육 과정 내내 마음적으로 훈훈했던 것 같다. 또한 참여자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었다. 도자기를

참여기업 멘토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도 도움이 되었고, 센터에서 지원해주는 활동비 지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Q. 동반성장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향후 참여하시는 멘토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소신껏 일하시되 참여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대하시고 교육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멘토가 여러 장소에서 많은 참여자들에게 교육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소수의 참여자들에게 깊이 있는 지식 전달이 이루어지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참여자



인터뷰  
5

참여자 \_ 이혜영씨

Q.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감.

집에 있을 때는 집안일 외에 특별히 활동한 것이 없었는데, 공방에 나와 함께 일을 하니 기분도 좋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보람이라면 공방 식구들과 같이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청년 취·창업 지원방안 등 크게 5가지 대책이 포함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22년까지 자활기업 1천개 및 저소득층 일자리 2만개 창출을 추진하고, 맞춤형 취·창업 인큐베이팅으로 사업실패·실직 저소득층이 스스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선순환 사회보장구조(패자부활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기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 과정을 거쳐 참여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들이 스스로 설립하여 만든 기업. 전국에 1,100여개(17년 12월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청소·집수리, 폐자원 재활용과 돌봄 서비스 등의 분야에 종사

\* 자활사업단(자활근로사업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립의지·역량 고양을 위해 직접 일자리 제공, 취·창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4만 명의 참여자가 2,400여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 첫째, 청년 취·창업 지원

- 자활기업 참여 청년에 자활장려수당(소득의 최대 30%) 지급
- 수급자 청년을 고용한 자활기업에 5년간 인건비 지원
  - \* 18년 인건비 지원액(101만원/인) 기준 처음 2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청년 자활장려금 수급(예시)>

- 4인 가구의 청년 가장인 S씨(29세)가 청년 자활사업단에서 성실 근무할 경우,
- 기존에는 생계급여 약 138만원(19년 기준)이 가구소득의 전부였으나
-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자활근로소득(129만원, 19년 기준)의 30%가 공제되어 90만원만 소득에 반영되므로 총 급여는 177만원으로 증가\*
- \* 자활급여(129만원) + 생계급여(138만원 - 90만원) = 177만원

- 자활기업 종사자 중 청년고용비율을 3%에서 10% 증가 하도록 지원
- 이전까지 주로 청소·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돌봄서비스 등의 분야 등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카페, 인테리어, 애견 사업, 스포츠, 쇼핑물 등으로 34세 이하 청년층이 선호하는 업종을 고려하여 업종범위 확대
- 올해 하반기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 도입
- 청년 자활근로사업단 도입과 함께 자활근로사업비 증가 및 사업개발비(최대 3,000만원) 별도 지원

### <지자체 청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창업지원 개요>

- (대상) 자활근로사업 신규 참여 또는 참여기간 2년 이내인 만 18세 ~ 34세 청년
- (업종) 요식업, 문화, 스포츠, 쇼핑물 유통 등 청년 선호 업종 중심
- (과정) 심리적 자립·사회적응 스킬훈련(1년차), 기술훈련, 사업단 운영(2·3년차)
- (지원) 사업준비금(최대 3천만원), 근로사업비(30%)를 50%로 확대, 창업 포상

## 둘째, 자활기업 적극 지원 체계 마련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성·운용하는 기금

- 전국 233개 지자체 4,000억원 규모의 자활기금이 적극 활용되도록 변경
  - \* 지금까지의 자활기금은 손실 우려와 까다로운 규정 등으로 사용 제한, 앞으로는 중앙자활센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
- 자활기업 관련규정\* 정비 : 기금폐지 및 오남용 제한
  - \* 올해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개정
- 신용보증기금과 협약 : 자활기업에 대한 자활기금의 융자 보증지원 강화
  - 지자체와 자활기업이 적극적인 기금활용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

## 셋째, 자활기업 문호 개방 및 규모화 지원

-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활기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과 정부사업에의 참여 기회 제공
-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한 제한기준 완화
  - \* 구성원 1/3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필수 고용 →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필수 고용 대상에 포함하여 1/3 (수급자는 1/5)

- 현재 지방자치단체(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집수리·간병사업 등)을 자활기업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도 자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자활기업의 고용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재활용업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화 및 규모화 지원 계획
  - 자활기업, 지자체 부지 활용,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작업장 설치 등 지원

## 넷째, 자활사업 참여절차 개편 및 참여자 역량 강화

-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인상
  - \* 올해 월 최대 101만원 → 내년 월 최대 129만원, 26% 이상 인상
- 참여자 중심 절차 간소화, 참여자 훈련 강화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취업경로'로 우선 유도 → '즉시취업', '중장기적 취·창업 준비' 선택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추진
- 연령·직업이력 등 과거·경직적 항목 중심 평가 → 자립의지 등 자활역량 및 가구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교육훈련과정 구축 : 자활기업 창업과정 및 운영과정 모두 지원

## 다섯째, 자활기업 지원 인프라 개편

- 중앙자활센터, 14개 광역자활센터, 251개 지역자활센터 재구조화 추진
  - 중앙자활센터(연수원 포함)와 광역자활센터(가칭)한국 자활복지개발원으로 통합추진 : 공공성과 안정성 도모
  -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추진(18.6 현재 9개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중)



# 음식으로 영화를 읽는다

## '변호인'의 돼지국밥, '강철비'의 깡깡이국수

감독의 의도적인 연출에 포함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음식'에도 의미가 있다. 모든 영화 속 설정이 텍스트가 되어 읽히는 것처럼 음식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텍스트의 일부이다. 때론 작위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텍스트는 자유롭게 영화도 자유롭게 의미에 대한 해석은 언제나 시도될 수 있다.



문화산책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감명 깊게 읽은 책,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사연을 A4 한 장에 담아 [master@soyapr.com](mailto:master@soyapr.com)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서민, 국민을 대변하는 음식 영화 '변호인'의 돼지국밥

영화 '변호인'(2013, 양우석 감독)은 배우 송강호가 연기한 실존 인물로 인해 유명세를 탔다. 그런데 그 인물의 이야기가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 근대사의 중요한 부분을 관통하기에 더더욱 이슈가 되었다. 지금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어제의 역사를 담고, 그 의미를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 '변호인'은 역사 속에서 '국민'의 의미를 묻고 있다. 어렵게 공부해서 변호사라는 반듯한 명함을 얻게 된 송우석. 돈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덤벼들던 그의 삶을 180도 달라지게 한 사건을 만난다. 누명을 쓰고 시국사범으로 체포된 국밥집 아들로 인해 변화하게 된 것이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인권도 묵살하는 절대 권력 앞에서 그는 "국가란 국민입니다."를 외친다.

영화 '변호인'에는 '돼지국밥'이라는 음식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돈 없던 고시생 송우석이 국밥을 먹고 도망간 것이 인연이 되어, 가난한 고시생의 배를 채워주던 음식이 되었던 '돼지국밥'은 그의 삶을 대변해 주는 음식이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단골로 찾아가는 국밥집, 사무장이 국밥 그만 먹자고 해도 그는 돼지국밥을 절대 잊지 못한다. 시뻘건 깍두기 놓고 국물과 함께 삼키는 돼지국밥은 가장 서민적인 음식이다. 서민들의 생활 터전인 시장 골목 구석에서 격식도 없고, 선택하지 않아도 나오는 대로 후루룩 먹고 다시 일하러 일어서야 하는 그런 음식이다. 무슨 부위인지 알아보기도 힘든 잡스러운 부위들을 썰어 넣고 탁한 국물에 말아 먹는 음식인 돼지국밥은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는 평범한 서민들과 닮았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층, 권력자나 재벌들처럼 이름이 알려지진 않아도 저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평범한 국민들, 그런 국민들의 가치가 돼지국밥에 담겨 있다.

국밥은 국민이다. 돼지국밥이 없었다면 송우석이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억압받는 국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 글 강인석 (시인, 칼럼니스트)

## 다른 이름 같은 음식, 한 나라 깡깡이 국수와 잔치국수

지난해 말 개봉되었던 영화 '강철비'(2017, 양우석 감독)는 긴장과 화해의 두 줄 타기를 하는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총격전과 핵전쟁 상황이 긴박하게 이어지는 영화이다. 이런 영화 속에도 '음식'이 등장해 제법 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여러 음식들이 있지만, 딱 한 장면이 눈을 사로잡았다.

북한의 전직 요원 엄철우를 데리고 비밀리에 회담 장소인 철원으로 이동하던 청와대 안보수석 광철우는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한다. 광철우가 군복무 시절 먹었다던 식당 이름은 '망향비빔국수'이다. 이 식당에서 광철우는 비빔국수를, 엄철우는 잔치국수를 먹는다.

"깡깡이국수가 참 맛있소."

"깡깡이국수가 뭐야?"

"저거이 깡깡이국수요."

두 사람과 식당 아주머니의 대화이다. 광철우는 엄철우를 위해 '잔치국수'를 세 그릇이나 시켜준다.

그 잔치국수를 엄철우는 '깡깡이국수'라고 부른다. 같은 음식이지만 남과 북에서 부르는 호칭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이름은 달라도 서로 같은 음식, 이 국수는 결국 남과 북이 서로 같은 나라, 같은 민족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국수 이름이 다르듯이 남과 북의 말과 문화가 조금 달라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같은 음식인 것처럼 같은 한 민족이라는 의미가 국수에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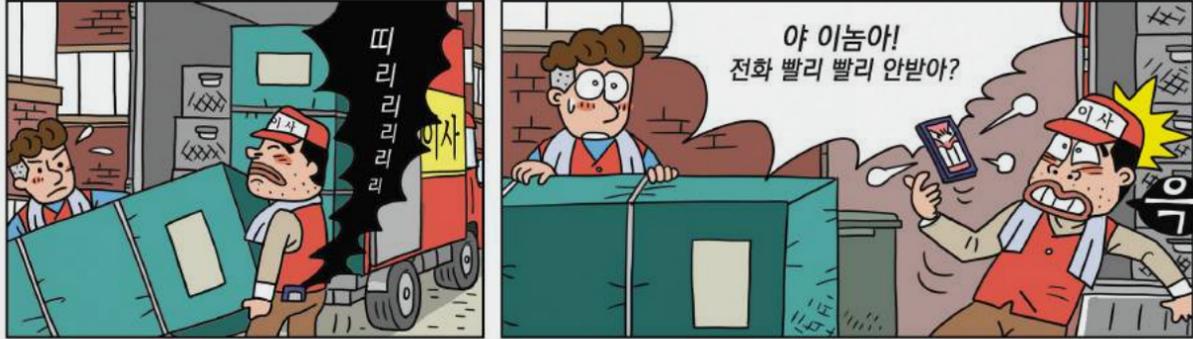
이 국수는 서로 간의 벽을 허물어주는 역할도 한다. 국수를 먹는 동안 처음에는 수감 한 쪽을 풀어주고, 잠시 후에는 양쪽 다 풀어준다. 붙잡고 붙잡힌 관계에서 '함께'하는 관계가 된다. "우린 같은 편이야"라는 광철우의 말처럼, 국수는 남과 북의 관계가 조금씩 풀리고, 좋은 결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남북의 화해 모드가 무르익고 있는 요즘,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지극히 평범한 음식들이 더 분명한 의미로 다가온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음식의 의미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영화 감상법일 것 같다. 🍜



# 자활론

정광숙



더 많은 가구에 단비가 되도록 2019년 근로장려금이 확 개편되었습니다.



자활론과 함께하는 자활생각

## 일한만큼 쌓이는 근로장려금(EITC)

EITC란 근로장려세제의 약자로 일을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낮아지고, 혜택은 늘어난다. 기존에는 30대부터 신청 가능했던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돼 30대 미만의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세 체납액에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

		2018년도	2019년도
연령 요건		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
소득 요건	단독	1,3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홀별이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별이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재산 1억원 이상 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2억원 미만 *재산 1.4억원 이상 시 지급액 50% 감액
최대 지급액	단독	85만원	150만원
	홀별이	200만원	260만원
	맞별이	250만원	300만원
최대 지급액 구간	단독	600~900만원	400~900만원
	홀별이	900~1,200만원	700~14,000만원
	맞별이	1,000~1,300만원	800~1,700만원
지급방식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해당연도 반기별 지급 추가(근로소득자)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상반기 소득분 : 8.21~9.10 신청, 12월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 다음해 2.21~3.10 신청, 6월말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ARS(1544-9944)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중앙자활센터 뉴스

###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7월13일 금요일부터 15일 일요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다. 금년도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그동안 부처별로 개최했던 관련 사회적경제 행사를 통합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준비함으로써 정부 중심의 일방적 행사가 아닌 민·관이 소통하고 화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공자 포상 등 기념 행사와 함께 제품 판매 정책 홍보 전시관 운영, 문화공연 및 학술포럼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이루어졌다.



### 2018 실패 박람회 참석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2018 실패 박람회가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최로 지난 9월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 3일간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자활프로그램 및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활 성공사례 소개와 우수 자활생산물 전시 등을 포함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 2018 자활복지 국제 심포지엄 개최

중앙자활센터의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행동의 변화를 동반하는 탈빈곤 자활사업 기획'을 주제로 2018년 제4회 자활복지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11월 22일 목요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지원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 I에서는 뉴욕주립대 남윤주 교수와 리즈메이칸대 야마모토 코헤이 교수, 라운드테이블 II는 저소득층 근로미약자를 위한 새로운 자활 모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시카고 로올라대 필립홍 교수와 스웨덴 기업 삼할의 모니카 링게르트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 퀴즈를 풀며, '자활읽기' 다시 보기!

낱말퀴즈의 정답은 모두 이번호 자활읽기 기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퀴즈를 풀면서 자활읽기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힌트는 참조 페이지 확인)

###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풀고, 이번호의 평가를 함께 찍어서 보내주세요.  
정답자 다섯 분께 김해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생산한 <합이누룽지 선물세트>을 보내드립니다.



	나			다		
1 가			라		마	
		바		사		아
		2				
3					4	
▶ 이번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 .....						
▶ 다음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 .....						

### 가로

- 1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p.14 참조
- 2 경기광주자활센터의 수공예 사업단 이름 p.18 참조
- 3 한국의 3대 장류 중에 하나, 된장, 간장, 그리고 이것.
- 4 일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모아두는 것. 자활의 대표적인 자산 형성의 기반이 되는 것.

### 세로

- 가 일의 이치를 구별하여 가르치는 일.
- 나 민선 의원으로 구성되고 입법 및 기타 중요한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
- 다 제4회 자활복지 국제심포지엄 주제 '○○의 변화를 동반하는 탈빈곤 자활사업 기획' p.02 참조
- 라 단체와 개인, 또는 단체와 단체 사이에 협정을 체결함. 업무○○
- 마 음식 따위를 만드는 데에 쓰는 대.
- 바 전남광역자활센터가 실시한 <우수자활기업 ○○○○ 프로젝트> p.24 참조
- 사 돌로 쌓은 담.
- 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성, 운용하는 기금. p.33 참조

### 응모방법

1. 가로세로 낱말 퀴즈를 풀고 빈칸에 정답을 적는다.
2. 정답과 하단 설문조사가 잘 보이게 사진을 찍는다.
3. 사진을 이메일(master@soyapr.com) 혹은 문자(010.8996.0161)로 전송한다.

응모마감  
2019년  
2월 1일

### 당첨발표

당첨자는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cssf.or.kr)에서 확인하세요.

당첨자 발표  
2019년  
2월 8일



 중앙자활센터